

2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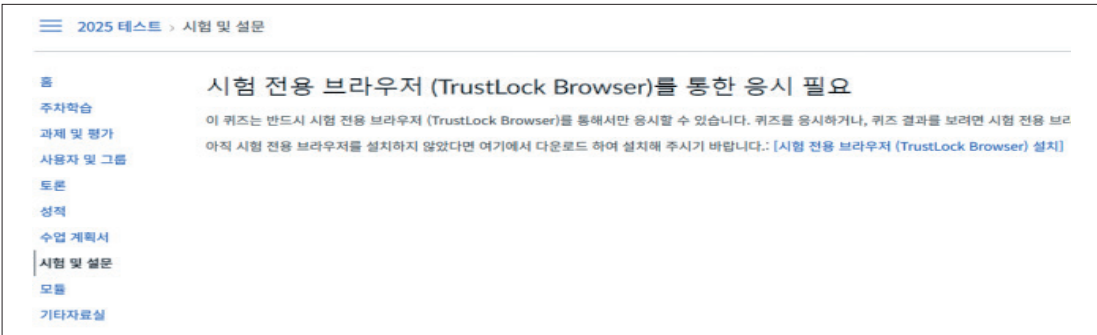
창 전환 · 이중창 · 캡처 제한, 온라인 시험 보안 고도화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오는 1학기 중간고사와 상시 진행 퀴즈에 비대면 시험 보안 전용 브라우저 'Trust Lock'이 도입된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비대면 온라인 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보안 전용 브라우저를 도입하게 됐다. 다만 해당 브라우저는 필수가 아닌, 교수 재량에 따른다.

주요 기능은 ▲시험 화면 전체 화면으로 자동 전환 ▲브라우저 메뉴, 도구, 옵션 기능 제한 ▲화면공유, 캡처 및 녹화, 인쇄, 이중창 제한 ▲마우스 우클릭 제한 ▲복사 및 붙여넣기 등 단축키 제한이다.

교수학습개발원은 온라인 강좌



비대면 시험 보안 전용 브라우저를 적용했을 시의 화면이다.

강의평가에서 '다른 인터넷 창 또는 외부 프로그램 접속 방식이 필요하다'는 학생 의견을 파악했다. 이에 'e-Campus 만족도 조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험 보안과 관련한 교수 요청을 반영해 이 브라우저를 개발했다.

비대면 시험 보안 전용 브라우저

는 PC 전용 브라우저이기에 태블릿, 핸드폰 등으로는 시험 접속이 불가하다. 학생들은 e-Campus 공지사항 안내글에 첨부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개인 PC에 설치할 수 있다.

비대면 강의 '공간과 권력으로 보는 세계'를 강의하는 교수학습개발

원장 지상현(지리학) 교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제를 복사-붙여넣기 해 답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시스템을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브라우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 교수는 이번 1학기 중간고사부터 브라우저를 사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강의 '비만의 사회학'을 강의하는 박승준(의예과) 교수는 "시험 전용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어 반갑다"며 "해당 브라우저가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부터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소희(연극영화학 2024) 씨는 "교수님의 경고만으로는 커닝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느껴, 평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수학습개발원은 보안 브라우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Ram Cnaan, 오준 등)
- ◎ 다양한 장학제도(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금)
-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정치학석사 및 평화학석사)

- 모집전공 :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 전형방법 : 면접

- 원서접수기간 : 4월 14일 ~ 7월 21일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admission참조)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9

경영대 전공 수업 갑작스런 대면 전환 통보 수강철회기간 지나 결정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되던 경영대 전공 수업 '의사결정모형및분석' 과목이 커리큘럼 진행 중에 전면 대면으로 전환돼 수강생 사이 불만이 제기됐다. 비대면 수업을 위해선 사전에 교수학습개발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수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강 한 달째인 지난 3일, '의사결정모형및분석'을 담당하는 김재경(경영학) 교수는 해당 수업 방식이 대면으로 전환됐다고 수강생에 공지했다. 갑작스러운 강의 방식 전환에 일부 학생은 불만을 드러냈다. 수강생 A 씨는 "월, 수 공강을 만들어 일정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아쉬워했다. 우리학교 원격 수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수업의 대면·비대면 여부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당 수업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비대면 수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강의계획서에는 '대면 + 비대면 병행'이라 언급돼 있지만, 예정된 오프라인 수업은 총 2회였다. 이 수업은 작년에도 수업 시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결정이 수강학점 철회 기

간인 3월 둘째 주 이후에 이뤄졌기에 불만이 제기됐다. 경영대 행정실은 의사결정모형및분석 강의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사실을 3월 말에 인지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강좌이기에, 경영대 행정실은 김 교수에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요청했고, 강의는 지난달 3일 공지를 통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해당 수업의 온라인 여부가 뒤늦게 확인된 이유에 대해 경영대 행정실 측 답은 들 수 없었다.

수업 방식 전환 후 김 교수는 지난 7일 학생들과 강의 방식을 논의했다. 이에 온라인 출석을 기본으로 하되,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할 경우 추가 점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수강생 반응은 다양했다. 수강생 B 씨는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 출석이 걱정됐는데, 교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상황을 더 빨리 인지하고 공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수강생 C 씨는 "학교나 교수님 측에서 실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수강생 D씨는 "오프라인 수업 출석이 추가 점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출석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